

전남대 의예과 286점·조선대 의예과 283점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로 본 지원 가능 대학

1등급 하한선 국어 89점

서울대 인문 281점·자연 275점

GIST 271점·광주교대 241점

서울대 인문계열은 281점이면 지원가능하고, 전남대 의예과와 조선대 의예과는 각각 286점과 283점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6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대체로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분석팀이 지역 고등학교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과목별 1등급 하한선은 국어 89점, 수학 가형 92점, 수학 나형 84점, 영어는 1등급 비율이 7% 미만으로 예측됐다.

이번 모의평가 출제난이도는 최근 수능의 출제 방향대로 눈에 띄는 신유형이나 정답들이 극히 낮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까다로운 문항이 있어 변별력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학 가형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이하게 출제됐으며, 전체적인 문제 유형은 6월 모의평가와 유사했다. 수학 나형은 지난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지난 수능과 비슷했으며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사회탐구는 세계사와 사회문화를 제외하면 지난 수능처럼 평이하게 출제됐다. 과학탐구 6월 모의평가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지구과학 I이 쉽게 출제됐으며 전체적으로 EBS 연계율이 높아 다소 수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분석팀은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대학교별 지원 가능 점수도 분석했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281점 이상, 자연계열 275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사로 다른 과탐 I+II, II+II 조합)에 충족한 학생들 표본에 의한 자료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269점 내외·자연계열 270점 정도로 예상됐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인문계열 266점 내외·자연계열 268점 정도가 지원 가능 점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271점, 광주교육대는 인문계열 241점·자연계열 246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40점·국어교육과 237점·행정학과 234점·경영학부 229점·정치외교학과 218점·국어국문학과 213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201점 내외로 판단했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6점·치의학과 282점·수의예과 272점·전기공학과 258점·수학교육과 244점·간호학과 234점·수학과 233점, 자연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수학(가) 지정학과 215점·수학(가/나) 학과는 207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봤다.

조선대는 영어교육과 212점, 국어교육과 206점, 의예과 283점, 치의예과 278점, 간호학과 222점, 수학교육과 206점, 전기공학과 198점, 기계공학과 174점으로 분석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가위 맞이 송편 나눔 광주시 서구 농성2동 주민센터(동장 송경애)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도덕영)회원 등 아깨동무 발굴단이 22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 100여 세대를 찾아 송편과 마을상생상품권을 전달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추석 연휴 기간 5·18묘지 입장 못한다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고,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22일 국립5·18민주묘지에 따르면 추석연휴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국립묘지 측은 설명이다.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 4·19, 5·18), 신안선열공원 등도 입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기일, 삼우제, 49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립묘지측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도 따른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 쓰기' 등을 할 수 있다.

오는 27일 까지 사전 전화신청을 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직원들이 민주공화국 묘역에 헌화 및 참배를 대신하고 사진을 찍어 유가족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

절반에도 못 미쳐...대책 필요

해마다 광주·전남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 보험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사업을 실시했지만, 이 조차도 가입률이 저조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통시장 소상공인 화재보험 미가입률은 광주 50.4%, 전남 63%에 달한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미가입률이 높고, 광주는 7번째였다.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

집해 있고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화도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전통시장에서는 총 12건(광주 6·전남 6)의 화재가 발생했다. 해마다 한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내 소상공인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49.3%), 필요성을 못 느낌(40.4%), 정보부족(5.5%), 보험제도 불신(1.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광주 5%에 불과하고, 전남은 18%에 그쳤다. 특히 광주는 제주(2%) 다음으로 전국 17개 시도 자치구중 가장 가입률이 저조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 수수료 없는 공유배달 앱 개발...배달원은 학생

'링크캠퍼스'와 업무협약

'다담' 내달 5일 론칭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조선대학교가 대학 상권을 대상으로 한 공유배달 앱을 개발하고, 배달은 대학생이 맡도록 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에 나섰다.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LINC+) 사업단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링크캠퍼스와 손잡고 공유배달 앱(APP)을 개발한다.

21일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에 따르면 사업단은 조선대 창업보육센터 입

주기업 링크캠퍼스와 최근 공유배달 앱 '다담'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유배달 앱 '다담'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에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앱이다. '다담'은 조선대 주변 상권에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되며, 배달원은 조선대 학생들이 맡는다. 배달원으로 등록한 학생들은 대학가 상점에 관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음식이나 물건을 대학 내외 주문자에게 가져다 주고 비용을 받는다.

조선대는 캠퍼스가 넓고 소량주문도 가능해서 학생들이 사이에서 '다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조선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LINC+사업단 홍보대사 '링크프렌즈'

의 활동을 통해 대학 주변 소상공인을 발굴, 제휴를 통해 업체 홍보동영상 제작 및 상품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대 LINC+사업단과 링크캠퍼스는 오는 10월5일 '다담'을 론칭할 예정이다. 조선대에서 '다담'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점차 이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링크캠퍼스 이현영 대표는 "지역상권 활성화형 앱서비스를 통해 대학의 배달 문화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성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장은 "조선대 LINC+사업단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 탱크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일부 고교 학생부 작성·지필평가 소홀

전남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과 지필 평가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22일 전남도교육청의 일선 고교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장 실습 고교생의 경우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실습유형, 실습대상 기관명, 실습 기간, 실습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A고는 2017년 10명의 실습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1명의 실습기간을 빠뜨렸고, 2019년엔 1명의 실습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B고는 직업교육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학생부 '교과 학

급 발달 상황'란에 위탁 교육기관명, 위탁 교육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2017년 12명, 2018년 24명, 2019년 20명 등 총 56명의 위탁 상황을 학생부에 누락했다.

C고는 지필 평가에 무단으로 응하지 않은 학생(미인정 결석)은 해당 학년, 소속 계열 성적 최하점(기준점)의 -1점을 부여해야 하는데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1명에게 기준점보다 적게는 2점, 많게는 4점을 감점하는 등 지필 평가 미응시자에게 점수를 부적절하게 줬다.

전남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해당 교사 등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청사 출입

'안심콜 시스템' 도입

광주시 북구가 '안심콜(CALL) 출입관리 시스템'을 병행 운영해 주민들의 청사 출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청사 출입 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휴대전화 번호와 출입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신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북구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고, 높은 정확성과 간편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어려움이 있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특히 이 시스템은 통화 기록이 전산 서버에 4주간 보관 후 폐기돼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자책 347종 추가 구입 제공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신규 전자책 347종을 추가로 구입해 제공한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코로나19 휴관과 부분 개관 등을 반복하면서 회관을 방

문하기 어려운 이용객들을 위해 상반기에 전자책 131종을 구매했다.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도서관 앱(스토어에서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면 1인당 5권씩, 7일간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